

이번 호 '정책과 쟁점'에는 '진단검사의학 검사용 의료장비의 질 관리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의료장비는 시설, 인력과 더불어 보건의료자원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국민의료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장비관리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에서 의료장비의 질관리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의 글을 실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장비라는 용어의 개념, 분류와 관리체계, 관리방안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료장비의 질 관리와 관련된 본격적이고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HIRA연구'에는 저희 센터 김재용 박사의 '급성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의 예후요인 규명 및 등록체계 개발'을 실었습니다. 심혈관계질환은 우리나라에서 암과 더불어 가장 큰 질병부담 항목입니다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조기사망과 장애 더 나아가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뇌졸중-심근경색 평가개발 과정과 연구의 성과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이와 유사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슈브리핑'에서는 3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은 이전 호들과 마찬가지로 7월1일부터의 제도 시행을 염두에 둔, 비교적 시의성이 있는 주제의 하나로 선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주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외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2006년도 CT 추구관리 결과'와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추구관리 결과'입니다. 두 개 모두 2006년도 청구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분석결과는 각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학회나 유관단체에도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속 회원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2007년도 청구분에 대한 평가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동향'에는 '해외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이용현황'을 비롯한 5가지 주제에 관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실었습니다.

'진료경향분석'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방의료비(건강보험급여대상 금액)는 연평균 11.6% 증가하였으며, 노인층에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상반기 한방의료비 기준 상위 5대 상병은 요통, 견비통, 염좌, 경부통, 마목(감각신경)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한방의료의 주요 항목인 한방첩약 등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

정 형 선